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이선영*, 김윤영**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Sun-Young Lee*, Yu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시에 위치한 K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은 서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 학생들의 대학교육에서부터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임상현장 및 보건의로 각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leadership was collected for the nursing students of K university in K city from Sep. 2015 to Nov. 2015. The results show that self-efficacy is different according to subjects' age,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ade. The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leadership are significant,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elf-leadership. It is expected that the nursing students will be able to act as a leader in clinical practice and health care by promot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from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operate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rogram including the opinions of learners.

Key Words : Self 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elf Leadership, Nursing Student, Convergence

Received 13 January 2016, Revised 26 Febr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Yunyoung Kim
(Sangmyung University)
Email: elixir@sm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고도의 지식경제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수동적,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삶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1]. 이렇게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2],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 대학과정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특히 간호대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명확한 직업목표를 가지고 입학하게 되면서 간호대학에서는 이에 걸맞게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습득을 목표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4]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며 간호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양성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됨에 따라 간호교육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간호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대학교육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에서 간호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수업시수 부족으로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다루어졌던 리더십 관련 교과목이 이제 대부분의 간호학과와 교과과정에 구성되어 교육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우며,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의료기술과 지식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질적인 간호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게 되었다[5] 이에 따라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을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하고 있다[6].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과성과 조직성공을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스스로 자신을 리더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7], 이러한 자기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대한 측면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다[8].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학습자가 가지는 내적인 학습 동기는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학습조력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9],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주도 학습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개인이 솔선하여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며,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10].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주도학습준비도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특성, 태도, 가치관, 능력 등의 복합체로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의미하며[11], 자기주도학습활동(Self-directed Learning Activities)을 수행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정도의 내적상태라 할 수 있다[12].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일수록 주도성, 독립성, 높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 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3], 해당분야의 전문성 개발, 일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14].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환경을 비롯한 질병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간호교육은 단순히 이론중심의 지식습득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고 그와 수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15], 간호교육 과정 동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6]. 또한 Kessenich 등(1997)은 간호학생은 실무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 스스로가 많은 학습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17], 권말숙(2011) 역시 간호학생이 졸업 후 간호전문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

도, 셀프리더십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을 알아본 연구를 비롯하여[19]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16, 20]. 그러나 내적 동기부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시에 위치한 K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320명 전수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부터 총 276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의 응답

이 누락된 3부를 제외한 2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설문 응답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 시 대상자 보호를 위해 K대학교 IRB의 승인을 거쳤으며,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가기입방식으로 작성한 설문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1,22]. 이 검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관련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과 관련된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과 관련된 6문항을 포함한 총 2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86$, 사회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85$, 사회적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69$ 이었다.

2.4.2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특성을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솔선수범 및 독립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미래지향적인 자기 이해, 창의성, 기본적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23].

SDLRS는 Guglielmino(1977)에 의해 개발한 것으로 [11] 개발 당시 41문항이었던 것이 58개 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

습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4.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척도는 Manz(1983)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24] 김한성(2002)이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25],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6개 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로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년, 건강상태, 거주형태, 성적, 종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자가 29명(10.6%), 여자가 244명(89.4%)이었으며, 25살 미만이 250명(91.6%)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분포는 1학년이 71명(26.0%), 2학년이 69명(25.3%), 3학년이 79명(28.9%), 4학년이 54명(19.8%)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양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88명(68.9%)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130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4명(71.1%)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149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79명(28.9%), 천주교 25명(9.2%), 불교 20명(7.3%)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9(10.6)
	Female	244(89.4)
Age(year)	20-24	250(91.6)
	25-29	18(6.6)
	Over 30	5(1.8)
Grade	Freshman	71(26.0)
	Sophomore	69(25.3)
	Junior	79(28.9)
	Senior	54(19.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88(68.9)
	Moderate	78(28.6)
	Unhealthy	7(2.6)
Type of Residence	Own home	44(16.1)
	Dormitory	130(47.6)
	Self-boarding	84(30.8)
	Etc	15(5.5)
Academic Record	Good	36(13.2)
	Fair	194(71.1)
	poor	43(15.8)
Religion	Christianity	79(28.9)
	Catholic	25(9.2)
	Buddhism	20(7.3)
	None	149(54.6)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3.104, p=.046$) 사후분석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경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844, p=.003$),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구에 활동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 도구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최소 3.15 ± 5.68 부터 최고 4.55 ± 5.81 값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평균 3.34 ± 4.73 점이었고 일반적 자기

(Table 2)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3)

Variables		Self 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elf Leadership	
		Mean±SD	t/F Duncan	Mean±SD	t/F Duncan	Mean±SD	t/F Duncan
Gender	Male	3.479±0.441	1.776	3.382±0.337	.223	3.614±0.588	.434
	Female	3.325±0.454		3.368±0.330		3.565±0.459	
Age (year)	20-24	3.321±0.445	3.104*	3.356±0.328	2.572	3.552±.473	2.237
	25-29	3.589±0.508		3.531±0.333		3.753±.452	
	Over 30	3.452±0.524		3.458±0.342		3.822±.443	
Grade	Freshmana	3.385±0.460	2.241	3.355±0.345	4.844** adb<c	3.563±0.483	2.557
	Sophomoreb	3.222±0.442		3.273±0.337		3.447±0.492	
	Juniorc	3.395±0.444		3.473±0.277		3.640±0.463	
	Senior d	3.359±0.464		3.361±0.342		3.639±0.43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360±0.451	.807	3.392±0.343	1.405	3.602±0.474	1.419
	Moderate	3.314±0.473		3.320±0.297		3.495±0.475	
	Unhealthy	3.168±0.312		3.320±0.350		3.579±0.383	
Type of Residence	Own home	3.334±0.496	.105	3.341±0.339	.307	3.587±0.558	.058
	Dormitory	3.329±0.442		3.388±0.353		3.576±0.450	
	Self-boarding	3.364±0.466		3.361±0.297		3.562±0.474	
	Etc	3.345±0.418		3.339±0.301		3.537±0.450	
Academic Record	Good	3.429±0.446	1.795	3.386±0.380	.720	3.685±0.561	1.208
	Fair	3.348±0.434		3.379±0.315		3.554±0.451	
	poor	3.239±0.538		3.314±0.358		3.550±0.494	
Religion	Christianity	3.364±0.430	.420	3.409±0.334	2.216	3.646±0.478	1.720
	Catholic	3.250±0.459		3.219±0.277		3.451±0.392	
	Buddhism	3.370±0.397		3.408±0.302		3.439±0.551	
	None	3.342±0.476		3.369±0.337		3.569±0.469	

*p<.05, **p<.01

효능감이 3.36±.483점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3.29±.582 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평균 3.37±.330점으로 하위항목 중 학습에 대한 개방성이 4.55±.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성이 3.15±.5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평균 3.24±.474점으로 하위항목 중 자기기대 항목이 3.69±.6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비판 항목이 3.25±.70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672, p<.001),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역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r=.452, p<.001).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경우 셀프리더십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52,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간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회귀분석 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d=1.90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 한계 (Tolerance) 0.1이하, 분산팽창지수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²은 .421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23, p<.001)<Table 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 Leadership

(N=273)

Variables	M±SD	Cronbach's α
Self Efficacy	3.34±0.473	.870
General Self-Efficacy	3.36±0.483	.853
Social Self-Efficacy	3.29±0.582	.696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3.37±0.330	.915
Openn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4.55±0.581	.692
Self-Concept as an Effective Learner	3.39±0.433	.663
Initiative and Independence in Learning	3.26±0.453	.590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3.52±0.545	.422
Love of Learning	3.38±0.390	.823
Positive Orientation to the Future	3.49±0.529	.618
Creativity	3.15±0.568	.673
Ability to Use Basic Study and Problem Solving Skills	3.55±0.474	.549
Self Leadership	3.24±0.474	.900
Self Expectation	3.69±0.639	.869
Rehearsal	3.64±0.671	.794
Goal Setting	3.63±0.626	.766
Self Reward	3.86±0.626	.765
Self Criticism	3.25±0.704	.759
Constructive Idea	3.33±0.625	.754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leadership

(N=273)

Variables	Self Efficacy r(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r(p)	Self Leadership r(p)
Self Efficacy	1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672***	1	
Self Leadership	.452***	.652***	1

***p<.001

〈Table 5〉 Effect of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Self-leadership

(N=273)

Variables	B	SE	β	t
Self Efficacy	.026	0.65	.025	.403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909	.089	.623	10.186***

R²=.425, Adj. R²=.421, F=99.89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최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추어 대학생들의 융복합(Convergence) 능력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34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인 3.42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26],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3.50점보다 낮았다[27]. 이는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평균 연령이 20대로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간호사 집단에 비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거나 직장생활에서 얻어지는 성취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46), 25-29세의 경우 3.589점으로 20-24세의 3.321점과 30세 이상의 3.452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경민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였다[19].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경우 연령의 증가할수록 경력이 증가하여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증가하면

서 자신이 가지는 지식과 능력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반면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실무 경험의 부족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30대 이상인 경우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30대 이상의 간호대학생이 5명이 불과하다는 점과 사후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46$), 사후분석 결과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지원 등(2010)의 연구에서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16] 주로 교양교과목과 기초과목을 학습하는 1, 2학년과는 달리 3학년의 경우 전공교과목 학습이 시작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4학년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3학년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로 인해 실습교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경우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현주(2015)의 연구결과 3.44와 비슷한 결과였다[6]. 또한 리더십 하위 요소에서는 자기보상 항목에서 3.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자기비판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6, 20]. 가장 점수가 높았던 자기보상과 관련된 문항은 일을 잘 수행하였을 때 기분 좋고 평소 즐기는 활동을 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하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내적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장 점수가 낮았던 자기비판 항목의 경우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자신에게 엄격해 지고 스스로를 꾸짖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자기비판을 통해 반복적인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추후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또한 비록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동일하게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윤신 등(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28]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3학년 학생의 경우 본격적인 전공교과목의 학습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간호 업무의 전문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내적동기 증가와 자발적 동기부여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이윤신 등(2015)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며[28],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성취목표동기, 자기주도학습,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김은주(2014)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9].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유의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능동적 요소가 셀프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건강 전문직 학습자를 위한 자기주도적학습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목표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유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자원을 찾아내도록 학습자자원과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임상현장 및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유형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및 셀프리더십이 서로 관계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특정 지역의 대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을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셀프리더십은 서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교육에서부터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임상현장 및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V. G. Zunker, "Career Counseling: A Holistic Approach", Cengage Learning, 2011
- [2]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3] Sook-Jeong Lee, Ye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 [4] J. Liaschenko, E. Peter,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Vol.. 46, No. 5, pp. 488-495, 2004.
- [5]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6, No. 2, pp. 143-151, 2010.
- [6]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 [7] C. Manz, H. Sims, "Leading self-managed groups: A conceptual analysis of a paradox",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7, pp. 141-165, 1986.
- [8]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6.
- [9] N. J. Huh, "An analytical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on learners' variable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5.
- [10] M.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Toronto, on: The Adult Education Company, 1975.
- [11] L.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1977.
- [12] S. Merriam, R. Caffarella, "Learning in Adulthood:

- A Comprehensive Guid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 [13] A. Clardy, “Learning on their own: Vocationally oriented self-directed learning projec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1, No. 2, pp. 105-125, 2000.
- [14] S. H. Yun, S. I. Na,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meta-cognition, learning motiv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open communic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7, No. 3, pp. 203-230, 2015.
- [15] N. Y. Yang, S. Y. M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4, pp. 473-480, 2007.
- [16] J. W. Park, K. S. “Bang,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7, No. 1, pp. 36-42, 2010.
- [17] E. Kessenich, G. Guyatt, A. Dicenso, “Teaching nursing students evidence-based nursing”, *Nurse Educator*, Vol. 22, No. 6, pp. 25-29, 1997.
- [18]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 [19] K. M. Lim, S. K. Bae, H. S. Ki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259-272, 2013.
- [20] J. Y. Lee, M. H. Cho,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3, No. 3-4, pp. 241-253, 2012.
- [21] M. Sherer, J. Maddux,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 [22]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23] M. R. Eom, H. S. Kim, E. K. Kim, K. Y. Seong, “Effects of Teaching Method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C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2, pp. 151-160, 2010.
- [24]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3.
- [25]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dissert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2002.
- [26] K. S. Ham.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3, pp. 585-592, 2005.
- [27] M. Y. Han, S. K. Sohn, S. H. Kwon, J. H. Choi, K. H.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Spiritual Well-Being, and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1, pp. 21-28, 2014.
- [28]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 [29] E. J. 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12, pp. 303-326, 2014.
- [30] M. Murad, Coto-Yglesias, F., Varkey, P., Prokop, L., Murad, “The effectiveness of self-directed learning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Medical Education, Vol. 44. No. 11, pp. 1057-1068, 2010.

이 선 영(Lee, Sun Young)



- 198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76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정신
- E-Mail : sylee@kongju.ac.kr

김 윤 영(Kim, Yun Young)



- 2008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대체의학
- E-Mail : elixir@smu.ac.kr